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시원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무더웠던 더위는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니 남은 한 해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22년 12월에 첫 출석하여 그 이듬 해 두명의 친구를 전도하여 2023년 여름에 3분의 성도가 3개월의 세례공부를 통해 세례를 받고 매주 일 두 곡의 특별찬양을 드렸던 이제 71세인 발렌지나성도가 몸이 아파 몇 주일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8월 12일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8월 17일 병원으로 심방하여 잘 치료받고 다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도록 주님의 은총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후에 갑자스런 소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8월 22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병원심방때 스스로 면회실까지 걸어오고 병실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편히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발렌지나성도의 마지막 찬양모습



병원심방때



발렌지나성도의 장례식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테러방지법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7월에 교회를 방문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사진을 찍고 돌아간 후, 다른 요구 없이 서류가 통과되었습니다. 수고한 레기나 자매의 도움이 컸습니다.

생명농업 현장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봄에 넣은 병아리들이 잘 커서 곧 계란을 낳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봄에 심은 식물들이 잘 자라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참외, 오이, 토마토, 찰옥수수, 고추, 감자, 마늘, 자두등을 수확하여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확한 것들은 성도들과 나누고 선교사님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찰옥수수 90여개를 연선헌 수련회에 나누었더니 모두 좋아해 줘서 더 감사했습니다. 이제 고구마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겐나지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보낼 사역자들이 생명농업을 배워서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교육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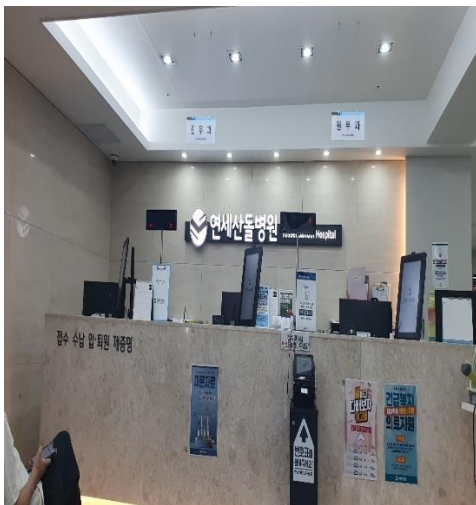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경유하여 몽골에서 있었던 유라시아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라시아의 선교사역을 나누고 동역자들을 만나고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고, 6월 중순에도 눈이 오는 몽골의 환경을 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힘차게 사역하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8월 15일에는 160여km 떨어진 갈릴리교회 어린이들이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여름성경학교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바노프까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 밟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방문시 아내 이기성 선교사의 병원진료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척추 12번 골절 후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절부위의 뼈가 녹아 없어져 척추뼈 한마디가 삼각형으로 축소되어 시술용 바늘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뼈마디 사이가 좁아졌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뼈를 튼튼히 하는 비타민D와 칼슘제를 처방 받았고,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6개월 후에 다시 방문하여 주사를 맞고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있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무거운 것도 들지 말라고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10kg을 찌우라고 해서 고민하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베다 물레니에(세금신고), 영주권자나 3년비자를 받은 자들이 1년에 한번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신고하는 제도인데 통장잔고가 30만루블(한화600만원정도)이 있어야 하고 일을 하면서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현지에서 받는 월급이 없어서 총회에서 발급한 선교사 재직, 재정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했고, 통장잔고는 지인들이 빌려줘서 넣었다 빼는 형식으로 제출하여 다행히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연선헌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동역자들의 만남으로 힘을 얻고 쉼과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리나성도가 동물들을 관리해 줘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성령충만 하여 지역에 본이 되고 전도의 동력이 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몸이 아파 쉬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2. 어린이 예배가 회복되어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이 말씀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3. 생명농업현장이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목적인 바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4. 함께 사역할 동역자와 후임자를 보내 주소서.
5. 이기성 선교사의 녹아 내린 척추뼈의 재생기능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6. 김경일, 이기성 선교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의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2026년 9월 7일

이바노프까 임마누엘교회와 생명농업현장에서

러시아 선교사 김경일, 이기성 드림